

올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되면? 직장인 40% 세금 더 낼 판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혜택을 상실,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감각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 351억5000만원.

2년 전인 지난 2007년의 경우 직장

인 538만5390명이 9조649억500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는 5.6%(30만1569명), 소득공제액은 43.8%(3조9702억원)이나 늘었다.

2009년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인 568만6959명 가운데 총급여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6.0%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4.0%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1.5%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000만원 이하 0.2% 등이었다.

2009년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원)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줬다.

한편, 세금관련 비영리기구(NGO)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2012년 전체 직장인들의 세부담액(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011년 귀속 세율 적용)은 1조18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내 맘에 쏙 드는 가방으로”

9일 광주신세계이마트가 신학기를 앞두고 2층 특설매장에서 ‘신학기 학생 가방 선물 제언전’을 진행한다. EXR 등 유명 브랜드가 참여한 다양한 모양의 캐릭터 가방을 선보였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제공>

수입품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관세청, 보조요원 21명 특채

수입품 품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9일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수집과 세관 단속 업무 수행을 보조할 단속보조요원 21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단속보조요원은 직무교육을 마친 뒤 서울·부산·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배치된 후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와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고졸 이상,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원서는 오는 1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접수한다.

앞서 관세청은 수출입 과정에서 공정무역, 먹거리 안전 수호,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의 중점 목표로 선정 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연임 유력

강만수 특보 지원 안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우리금융 회장 후보 공모에 이 회장은 헤드헌터사를 통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우리금융 민영화의 물꼬를 텃으며 우리금융의 실적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11년 우리금

융 출범 이후 첫 회장 연임 사례가 된다.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2월말까지 단독 후보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3월4일 열리는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3월25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금융 회장 공모에는 헤드헌터 업체 2곳이 차기 회장 후보들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회장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이날 중순부터 이종휘 우리은행장과 송기진 광주은행장, 박영빈 경남은행장 직무대행의 뒤를 이을 차기 은행장 선출 작업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광주식약청 순창 방문 전통식품 산업발전 지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지영애)은 장류 등 지역 전통식품의 소비활성화와 지역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1일 순창군 등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이번 방문기관은 ▲순창군(지역 전통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순창장류연구소·순창전통고추장연합회(운영상황 및 건의 사항 청취) ▲고추장마을 순회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장류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지역 전통식품 소비 활성화와 생산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대출금리 ‘高高’... 이자 부담 ‘눈덩이’

CD금리 3%대... 주택담보대출도 최고 6%대 중반

올해 금리가 상승추세를 지속하면서 대출 금리도 인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접어들기 전에 시중은행들의 대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 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시중은행 대출-1개월간 2조 가까이 늘어=9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1월 말 현재 647조8973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1조29259억 원 증가했다.

작년에 꾸준히 증가하던 시중은행의 원화대출은 작년 12월 연말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기업의 대출 상환 등으로 5조9548억 원 급감한 뒤 지난 달 증가세로 복귀했다.

지난 달 원화대출이 증가한 것은 중기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현재 292조8477억 원으로 전달 말보다 2조2639억 원 늘었다. 중기대출 잔액은 작년 11월 1조1213억 원 감소한 데 이어 12월에는 6조6914억 원 급증했지만, 지난달에는 설을 앞두고 기업들이 운용자금 마련에 나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기업대출은 53조9823억 원으로 1조2269억 원 늘어난 반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복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98조7479억 원으로 5087억 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작년 8월 8536억 원 줄어든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금리는 高高-대출자 부담 가중=올해 들어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각종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에급증서(CD) 금리는 2년 만에 연 3%대를 넘어 작년 말 대비 0.29%포인트 인상됐다. CD 금리는 이달 1일 연 3.05%에서 설 명절 연휴 이후 이를 연숙 상승해 전달 연 3.09%로 마감했다.

다른 채권 금리도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연 3.98%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7일 연 4.10%까지 상승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작년 말 연 4.08%에서 전달 연 4.51%까지 0.43%포인트나 올랐다.

이에 따라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는 연 6%대 중반까지 인상됐다. /연합뉴스

카드사 카드론 대출 금증 작년 대출잔액 24조9천억

지난해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 대출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카드사들의 카드론 대출잔액이 24조9000억원으로 전년(18조원)에 비해 38.3%(6조 9000억원)나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카드론 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카드사들이 중소기업 수수료 인하 등 신용판매 부분의 수익률이 줄어들면서 현금대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드론을 중심으로 카드대출의 이용규모가 커졌고, 저신용층(7~10등급)에 대한 카드대출 비중도 증가했기 때문에 카드대출 부실화 소지도 늘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사들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카드사의 카드대출 리스크관리실 태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도넛으로 사랑 고백하세요

타이데이를 위한 ‘초콜릿 하트도넛’ 출시행사서 모델들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시 중구 명동2가 던킨도너츠 명동본점에서 열린 뽀빠의 ‘도넛으로 사랑 고백하세요’ 행사에 참가한 모델들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사 실적 ‘굿’... 고유가 덕 봤다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한 고유가 장세로 국내 정유사의 실적이 2009년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 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정유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0조3617억원과 9854억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은 25.1%, 영업이익은 23배로 늘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35조 3158억원으로 전년보다 26.5% 늘었고 영업이익은 1조2001억원으로 전년대비 60.3% 증가했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매출 20조5290억원으로 전년보다 17.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344억원으로 139.3%나 늘었다. /연합뉴스

유선 인터넷전화 가입자 꾸준히 증가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전체 국민 수를 초과하는 무선 전성시대를 맞이했으나 저비용을 강점으로 하는 유선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전화(VoIP)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인터넷전화 가

입자 수는 총 717만여명에 달해 같은 해 1월말 대비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한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KT가 279만2000명으로, 278만8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LG유플러스를 근소한 차이로 앞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브로드밴

드의 경우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가입자수가 159만90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전화의 강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통화료다.

KT의 경우 시내이든 시외든 동일한 3분당 39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3분당 38원을 적용한다. 휴대전화와 통화하더라도 KT는 10초당 13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10초당 11.7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20가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특별시설안내

- 5F 벨라지오희(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워트니스센터
- 1F 프론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담실
- B1F 대연회장, 페덱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플렉서 옆) | www.hotellarthall.co.kr

古家 고향의 맛- 정통 고가약오리탕

진정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엄선된 약재와 까다로운 재료 선별로 최고의 맛과 건강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모든 조리과정에 청결함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게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오리탕 예약문의 062)226-8254